

‘목포 센트럴파크’로 떠오른 삼학도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시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삼학도가 ‘목포의 센트럴파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곳을 찾은 관광객만 10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기의 배경은 ‘삼학도 삼락’(三學= 보는 즐거움, 타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는 즐거움=우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과 목포 어린이 바다 과학관이 꼽힌다.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개관한 김대중 기념관에는 노벨평화상 기념메달과 상장, 학장시절 학적부, 정치입문 당시 연설문, 대통령 업무 당시 사용한 소품 등 총 4800여점이 전시돼 있다.

개관 이후 3월말 현재까지 방문객은 17만 명. 초창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단(이사장 전운철) 측의 노력이 한 몫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1종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고, 지난 2월에는 전남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현장학습 체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동안 DJ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과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기획사진전, 평화의 길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으며, 서거 5주기를 맞는 6월에는 다양한 추모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최명호 관장은 “삼학도에 뛰어난 관광 인프라가 집약돼 목포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향후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념관 앞에 위치한 석탄부두가 2015년 신항으로 이전되면 5만 급 크루즈 선의 접안이 가능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념관과 불과 500m 거리에 ‘목포 어린이 바다 과학관’이 위치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총 사업비 117억 원을 들여 지난해 2월 개관한 후 1년간 관람객은 47만 명. 주로 유치원·초등학교생들로 광주 등 외지에서도 많이 찾는다. 전국 유일의 어린이 바다 과학관인 탓도 있지만 현장학습 체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람료 50%를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학관은 목포 교육청으로부터 주말학교로 지정돼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전시·체험기관이면서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관을 소재로 한 3D 영상 제작기관으로

김대중 노벨상기념관 보고
요트 타며 야간 경관 투어
해산물거리선 ‘5미’ 즐겨

‘삼락’ 등 관광인프라 넘쳐
해양관광 명소로 급부상
연 관광객 100만명 찾아



요트 마리나향.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1930년대 삼학도 전경.

선정돼 국비 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 콘텐츠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 및 300여 곳에 달하는 전시관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명심 관장은 “직접 체험이 가능한 시설이 많아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과학지식을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는 즐거움=과학관 인근에는 목포 요트 마리나 시설이 설치돼 있어 ‘타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목포시는 해양관광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50피트(ft급) 32척이 계류할 수 있는 요트 마리나 시설을 준공했다. 현재는 해상과 육상에 모두 55여 척이 계류돼 있다.

목포시도 10억여 원을 투입, ‘해맑은 호’(51피트급·19t)를 건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승인원은 최대 25명으로 지금까지 462회에 걸쳐 총 5984명이 요트를 체험했다. 시티 투어와 연계 운행해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야간 경관투어는 타는 즐거움의 백미로 꼽힌다.

또 요트 외에 카누를 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소삼학도와 중삼학도에 조성된 수로 2.1km를 직접 노를 저어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4인승 5대와 3인승 10대 등 총 15대가 구비돼 있다.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 카누 체험장은 지난 19일 개장했다.

◇먹는 즐거움=이곳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목포 종합수산물 시장과 해산물 거리가 위치해 찰 따라 ‘목포 5미’(味)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삼학도 삼락’이 유명세를 타면서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 덕분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만 국비 352억을 포함 총 1177억원에 달한다. 올 예산은 국비 30억과 시비 10억 등 40억. 앞으로 더 투입돼야 할 예산은 대략 300억 정도.

시는 해경부두와 석탄부두가 이전되면 그 자리에 90억을 들여 데크와 해변 광장, 대공연장, 레일 바이크, 친수 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영희 도시개발 사업단장은 “2017년이면 이 같은 사업이 모두 마무리돼 명실공히 삼학도가 목포의 ‘센트럴파크’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3무(無=공원·하천·그린벨트) 도시’ 목포라는 오명도 말끔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완도로 신비로운 백해삼 보러 오세요

해조류박람회장 생태관 전시

“신비로운 ‘백해삼’(白海參·사진)을 보러 완도로 오세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장 전시관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시관에서 단연 으뜸은 해안산 갯바위를 실제 옮겨놓은 듯한 생태환경관 타이더풀 수중의 ‘백해삼’이다.

박람회 조직위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환경관에 각가지 바다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최근 청산도에서 잡은 ‘백해삼’을 전시해 인기가 높다.

‘백해삼’은 백해삼과에 딸린 극피동물로 내장이 보일 정도로 반투명하고 빛깔이 백색을 띠고 있으며,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제주 출신으로 40여년간 해녀 일



을 하고 있는 김영랑(60·완도읍)씨는 “백해삼은 10년만에 한마리를 잡을까, 말까하는 희귀종이다”고 말했다.

해삼은 ‘바다에서 나는 인삼’이란 뜻이며, 길쭉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독특한 모양새 때문에 영어로는 ‘sea cucumber’(바다에서 나는 오이)로 불린다.

백해삼은 해조류 박람회장 생태관 타이더풀에서 오는 5월 11일까지 전시된다. 한편 개막 11일째인 21일 현재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장 관람객은 22만명을 돌파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화순 천운농협, 조생종 벼 첫 모내기

화순 천운농협(조합장 박관석)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조생종 벼를 심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후 추석전 수확, 햅쌀로 가공·판매한다.

화순 천운농협에 따르면 쌀 전업 농 김명현(40·남면 검산리)씨가 천운농협을 통해 ‘전남 1호’ 종자를 지원받아 지난 21일 화순에서 가장 빠르게 모내기를 실시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전남 1호’는 병충해에 강하고, 밀집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 품종이다.

김씨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수확한 쌀 전량을 천운농협을 통해 출하할 예정이다.

천운농협은 매년 조생종벼 작목반을 구성해 종자 및 육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15농가 16.7ha를 계약 재배해 추석(9월 8일)전인 8월 18일께 수확한 후 햅쌀로 가공해 높은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박관석 조합장은 “조생종 벼를 심어 조기 수확하면 노동력이 분산되고, 농협에서 종자 및 육묘를 지원하고 있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지역상권 보호 앞장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대장 송인규)는 해남읍 상가변영회(회장 김광원)와 공동으로 최근 자위방범대를 구축하고, 5일 시장 등 지역상권 보호 및 단속에 들어갔다.

상가변영회는 앞으로 경찰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한 도박 등 시장 이미지 훼손에 함께 대처하고,

잡은 경찰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해남경찰은 지역 정서 평화와 경찰의 4대 사회약 근절 등 경찰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변영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홍보 및 단속을 펼쳐 일가양득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고 설명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현재의 삼학도 전경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노가리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28~30cm의 엄선된 수산물로 전량 러시아산의 명태를 강원도 고성 의덕에서 건조하고 가공. 포장한 노가리를 전 국민에게 저렴하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점이나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술안주로는 최상품이라 자부하는 저희 제품을 적극 권장합니다. *생태 동태 명태 코다리...곧 출시예정

이렇게 큰 가리비를 이 가격에!!!
국내산 가리비보다 크기와 가격에서 압도하는 최상급의 가리비를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100%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산물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밖에 대구, 한치, 풍령어, 낙지... 있습니다. (주)해감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 할 것입니다.

배달도 되나요?
됩니다. 전국 어디라도 배달합니다. 통신판매, 택배 모두 됩니다. 북한은 **안** 돼요!!!
코메디언 할무가 한입 베어 물고 극찬한 **가리비와 노가리**를 뜯으며 한무가 풀린 노가리(이야기)를 방생했습니다.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HG 농업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